

기독교학교의 사명과 공공성

강 영 택*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공공성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러한 공공성의 추구가 우리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교육 공공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후 이에 더하여 기독교학교가 지향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교육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잃어가는 핵심적인 공적가치들인 생명존중, 공동체성, 정의, 평화 등을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속에 내면화시킨 영성교육, 공동체교육, 정의와 평화교육은 우리사회의 공공성 확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학교의 영성교육은 과도한 물질주의와 현세주의로 인해 소외와 허무 속에 갇혀있는 우리 학교와 사회를 인간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자에 대한 넓은 이해로 가득한 학교와 사회로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독교학교의 공동체교육은 개인주의와 경쟁 지상주의에 포획되어 각박해진 우리 학교와 사회를 따뜻하고 화목한 관계가 살아있는 학교와 사회로 거듭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독교학교의 정의와 평화교육은 우리사회의 시장만능주의와 권력지상주의로 인한 패배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외면당하는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기독교학교, 교육공공성, 영성교육, 공동체교육, 정의와 평화교육

*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13년 11월 19일 접수, 12월 17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I. 서론: 기독교학교와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공교육제도는 근대국가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제도 하에 있는 학교가 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의 공공성 문제는 2000년대 들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학교의 교육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과 관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공공성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논의이고, 둘째는 사립학교(법개정)와 관련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논의이다.

먼저 1990년대 말의 IMF사태로 말미암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이념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쳐 교육의 시장화 혹은 사사화(privatization)를 촉진하는 신자유주의 성향의 교육개혁이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교육의 평등성과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공공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서덕희, 2001; 엄기호, 2001; 이종태, 2006). 또한 2004년 발생했던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 사태를 계기로 학생의 종교자유라는 공공성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자율성의 문제가 공공성 논의의 주요 주제로 떠올랐다(김재웅, 2006; 박종보, 2007; 전재중, 2006). 이 논의는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강경근, 2006; 김신일, 2006; 김재춘, 2006).

이러한 두 맥락에서의 교육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기독교학교를 바라보는데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는 자칫 교육의 공공성을 교육의 반시장화 혹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 강화 등으로 단순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은 국가의 직접적 관리 책임 하에 있는 공립학교가 국가의 개입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립학교나 대안학교보다 교육 공공성을 보다 잘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요구하는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기독교학교는 공공성을 경시한다는 오해를 낳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기독교학교에서 비신자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강압적으로 실시한 예들로 인

해 마치 기독교학교가 공적 관심 대신 종파적 관심만을 갖는 반공공적(反公公共的) 기관인 것처럼 호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기독교학교는 오래전부터 교육 공공성을 학교의 본질적 사명과 관계하는 것으로 여겨왔다.¹⁾ 교회와 기독교학교의 공식문서나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의 초기 역사는 기독교학교의 공공적 성격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강영택, 2012b). 2007년 발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기독교학교교육헌장’이나 2006년 채택한 한국 가톨릭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 학교교육헌장’은 정의와 평화가 핵심인 하나님나라 건설을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한말의 많은 초창기 기독교학교들은 교육구국(教育救國)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²⁾

본 논문에서 기독교학교가 공공성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다시 자세하게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신 본 논문에서 주안점으로 삼고자하는 것은 기독교학교가 추구해야할 공공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기독교학교는 종교계학교로서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독교학교는 교육이 보편적으로 갖는 공적인 기능 뿐 아니라 신앙 혹은 영성을 토대로 한 교육이 갖는 공적인 역할도 갖는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은 기독교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공공성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러한 공공성의 추구가 우리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후 이에 더하여 기독교학교가 지향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천해야할 세 가지 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의 성숙에 기여하는 것이 기독교학교의 사명임을 다시금 상기하고자 한다.

II. 교육 공공성과 기독교학교의 공공성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 공교육제도의 발달과정은 근대국가 형성과

1) 본 논문에서 기독교학교란 기독교 신앙교육을 표방하는 학교 모두를 일컫는다. 기독교계사립학교가 주류가 되지만 기독교대안학교도 포함된다.

2)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학교들의 종교교육/신앙교육과 사회적 책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영택(2012a)을 참조할 것.

정의 일부로 전개되었다. 민족국가의 형성과 강화를 위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공교육의 발달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회통합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김신일, 2006; 이윤미, 2001). ‘국가관리’와 ‘평등성’은 현대에도 공교육의 기본 원리가 되어 ‘공교육이란 국가에 의해 관리, 지원되는 교육체제로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성립되는 근거가 된다(이윤미, 2001: 14).

그러나 교육의 국가관리와 평등성이 공교육의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준거라 하기는 어렵다. 이 두 요소는 교육이 특정계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즉,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평등성을 확보하는 일이 근대 민족국가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충분조건은 무엇인가? 교육의 공공성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나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이종태, 2006). 이렇게 볼 때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의 제공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교육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거나 교육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교육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도록 하고 이웃을 향한 봉사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비록 국가관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공공성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이종태, 2006).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공공성을 지향하는 교육이란 “공적으로 행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라 규정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견해를 수긍할 수 있다(이종태, 2006). 공적으로 행위하고 말하고 사유하는 인간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나 사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타자의 존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일 것이다.

앞의 교육공공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초점을 둔 반면 성병창(2007)은 이에 덧붙여 교육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논의하여 교육공공성의 개념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교육공공성이 어

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교육행위자가 어떤 교육수혜자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 내용에 초점을 두는지, 그러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교육비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할 것인지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성병창, 2007: 233). 그에 따르면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비용 등과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이 중요한데, 교육 목표는 사랑의 속성을 갖는 공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공의이어야 하고, 교육 내용은 공적 지식 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 대상은 차별이 아닌 차이가 인정되는 보편적 일반대중이어야 하고, 교육 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비용의 충분한 확충과 공정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했다(성병창, 2007: 234-239).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교육의 공공성에는 우선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가 공의(公義) 혹은 공익(公益)에 부합해야 되고, 교육의 내용은 그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공공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공성의 실제적인 완성은 교육 대상을 선정하는 일이나 비용을 확보, 배분하는 일에서 평등성이 확보될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는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 하에서는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들에서 교육 대상의 선정이나 교육비용의 배분이 국가의 관리 하에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³⁾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논의를 주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독교학교의 공공성 역시 이러한 교육 공공성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독교학교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학교의 중요한 사명의 일부로 여겨왔기 때문에 교육 공공성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도 관계한다(강영택, 2012b). 다만 종교계학교에 속하는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은 공립학교의 공공성과는 다른 독특성을 지닐 수 있다. 기독교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이 갖는 일반적인 공공성을 공립학교와 공유하지만 종교교육 혹은 신앙교육을 학교의 정체성으로 삼기에 신앙교육으로 기인하는 차별적 공공성을 가질 수도 있다.

3) 물론 학생의 학업능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을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자율고와 특목고, 그리고 일부의 대안학교들은 교육대상의 선정이나 교육비용의 확보 및 배분이란 측면에서 교육공공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논의를 사교육의 범위로까지 확대한다면 교육대상과 비용의 문제는 평등성의 기준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2006년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승인한 ‘한국가톨릭학교 교육헌장’에 따르면 가톨릭학교의 교육방향은 생명존중교육, 평화와 정의교육, 봉사교육, 문화적 대화교육, 환경보전교육으로 되어있다. 기독교적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다섯 가지 주제들을 학교교육의 방향과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주제들이다. 또한 오늘날 미국의 가톨릭학교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사회정의와 사람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간의 관계적/공동체적 측면을 중시하여 학교에서 공동체성의 회복을 추구한 결과 미국사회에서 공공선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Bryk, et al., 1993).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 2004)는 기독교의 핵심적 비전을 샬롬(shalom)이라 보고 기독교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목표 역시 샬롬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샬롬은 평화를 넘어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정의와 평화가 되어야 하고 이는 교육내용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팔머(P. Palmer, 1993)는 진정한 교육의 영성이란 교육을 통해 진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동체 교육을 (기독교적)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 삼았다.

기독교학교에 대한 가톨릭교회와 기독교 학자들의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생명존중, 공동체성, 정의, 평화 등이 기독교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주요 공적 가치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생명존중, 공동체성, 정의, 평화와 같은 가치들을 교육의 주요 목표와 내용으로 삼는 영성교육, 공동체교육, 정의와 평화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학교들은 영성교육, 공동체교육, 정의와 평화교육을 통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교육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교육들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중복적이어서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서는 영성교육, 공동체교육, 정의와 평화교육을 구분하여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면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육공공성과 관계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III. 공공성을 지향하는 기독교학교교육

1. 영성교육

종교계학교로서 기독교학교가 갖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독교적 신앙/영성이 학교교육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기독교학교에서 신앙은 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앙이 교육에 주는 영향은 교육의 공공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만일 학교에서 교육하는 신앙이 배타적이고 편협하여 종파적 관심에만 머문다면 기독교학교의 교육은 사회의 공공성 확립에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성경에 토대한 기독교신앙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 영성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기독교학교교육은 오늘날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생명에 대한 통진적 시각과 초월적 관점 대신 효율적 가치로 생명의 존엄성을 쉽게 평가하는 오늘날의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교육에서 영성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와 관계한다. “내 인생은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가?”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희망을 지탱할 수 있는가?” “나 자신과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저기 바깥의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나는 내 자아보다 더 커다란 무엇과 연결될 수 있을까?” 등과 같이 인간 영혼의 절박한 질문과 요구를 다루는 것이 영성교육의 주 내용이다(Palmer, 2011: 203-206).

근대사회의 많은 학교들이 종교의 중립성을 표방하다가 영성을 교육의 영역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영성교육을 배제한 근대교육은 사람들의 소외감, 고립감, 정신적 혼란,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 등 정신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한명희 외, 2010). 영성교육을 간과해온 근대교육의 또 하나의 맹점은 세상을 편협한 시각으로 보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팔머(1993)는 근대교육이 강조하는 지성의 눈으로는 차가운 사실과 이성의 세계는 볼 수 있지만 따뜻한 마음과 영혼의 세계는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기계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는 것이다. 즉, 영성이 결여된 학교교육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분석하고 조작하여 결국 타인을 지배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보는 온전한 시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성형성을 위한 영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기독교학교의 영성 교육에는 통전성(wholeness)의 영성과 환대(hospitality)의 영성이 특히 중요하다(손원영, 2007; Palmer, 1993; 2011). 통전성의 영성과 환대의 영성은 생명존중 사상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통전성이란 인간이 지·정·의로 구성된 인격체이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 존재임을 선언하는 말이다. 나아가 인간은 나, 너, 우리의 공동체적 존재이며, 자연/우주 그리고 신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간의 존재 속에서도 자연의 미물 속에서도 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손원영, 2007).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고 신약성경에는 교회성도로 부른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체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동체성을 중시하여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러한 것들은 통전성을 보여주는 성경적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전성의 영성이 기독교학교에서 교육된다는 것은 분절되고 개인주의화 된 우리 사회와 학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삶과 유리된 지식만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학생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적 관계로,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개발과 정복의 대상으로, 신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한 무관심의 대상으로 대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파편화되어 타자와 분리된 채 고립된 존재로 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학교의 통전성의 영성교육은 인간 개인의 측면에서는 학생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행위를 통합하도록 안내하고, 관계적 측면에서는 학생을 타인과 자연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어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게 한다.

환대란 라틴어 ‘hospes’의 의미인 ‘주인과 손님이 식탁을 마주하고 하나가 된다’로부터 온 개념이다. 이를 레비나스(Levinas)의 용어로 설명하면, “타자에 대한 존중 가운데 결코 나로 환원될 수 없는 그 타자(otherness)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손원영, 2007). 성경은 환대의 예들을 잘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낯선 나 그네를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은 천사/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었다(창 18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 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눅 24장).

환대의 영성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Palmer, 2011). 낯선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한 민주주의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낯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섞일 수 있는 공적 공간이 필요하다. 학교가 그러한 공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낯선 이들을 수용하고 환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학교들은 점점 계층적, 문화적 동질 집단이 모이는 장소로 바뀌고 있어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수용과 환대를 교육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학교에서 환대의 영성교육은 왜 낯선 자를 환대해야 하는지, 타자를 환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우리사회에서 공적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전성과 환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기독교학교에서의 영성교육은 학생들을 분열되지 않은 총체적 인간으로 잘 교육시켜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환영하고 수용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에서 시도될 수 있는 영성교육의 실천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먼저, 기독교학교에서 통전성의 영성교육을 위한 방법에는 기도, 명상, 성경묵상, 자연과의 교감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영성교육의 방법인 기도와 명상은 먼저 자신의 분열된 내면을 통합한 뒤 자신과 타인, 인간과 인간 외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한데 얽혀 있는 광대한 생명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길이 된다(Palmer, 1993: 59). 기독교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는 학생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비롯한 명상자료를 읽으면서 명상의 시간을 갖고 아침산행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우주 속의 자아를 깨달아 인간의 통전성을 배워간다고 한다(송순재, 2006). 기독교학교인 풀무학교에는 학생들이 매일 새벽에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 학생들은 성경묵상 시간을 통해 자신과 자신,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시간이 자신들의 가치관의 토대를 놓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곤 한다(홍순명, 1998).

통전성의 영성과 함께 중요한 환대의 영성교육을 위해 기독교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문화적 감수성의 개발과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있다. 다문화적 감수성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나 능력을 일컫는다. 이는 학교 혹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되 타문화에 대해 편견적인 태도 대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다문화적 감수성은 타문화 속에 있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는 현대의 영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주변에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수용적 태도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학교에서 현대의 영성교육을 위해서는 타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종교에 대해 올바른 이해 없이 무조건 백안시하는 배타적 태도가 현대 대신 갈등과 증오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영성을 기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잘 계획되기만 하면 낯선 이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사람들의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동일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2. 공동체교육

교육에서 공동체라는 주제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 공동체교육 또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 사회와 학교에 대한 성찰의 결과일 것이다. 소외감, 학교폭력, 왕따현상, 협동심의 상실 등 오늘날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위기적 상황이 공동체적 가치 대신 개인주의와 경쟁의 가치가 중시되고 관료적 조직체계의 성격이 강화되는 학교로부터 연유하는 결과임이 종종 지적된다(Furman, 2002). 그래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성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하는 길이라 주장되기도 한다(Sergiovanni, 1996).

기독교학교는 일찍부터 공동체교육에 대해 강조해왔다. 기독교학교교육은 공동체적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 앞장에서 논의한 영성교육은 왜 기독교학교가 공동체교육을 교육의 본질적 특성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통전성의 영성을 지닌 인간은 다른 주체들과의 유기적 관계에 있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 즉 공동체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환대의 영성은 인간이 타자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공동체의 형성이 인간의 중요한 사명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에서 영성교육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여 상호간에 유기적 관계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공동체교육을 지향하게 한다.

기독교학교에서 공동체교육의 중요성은 교육의 핵심인 인간과 지식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살펴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⁴⁾ 먼저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관계적 존재라 함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다른 인간, 보살피고 경작해야 할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인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이 관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시며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다(Migliore, 1991: 69). 하나님은 “서로를 주는 나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니고 있다(61).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존재이다. 리차드 마우(Richard Mouw, 2004)는 기독교인은 단수가 아닌 복수이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의 관계적 속성과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인간을 집단 속의 부분으로만 간주하여 개인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지체비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몸의 각 지체들은 개별적 가치를 가지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몸 전체가 건강해 지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각 부분과 전체는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볼 때 기독교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다른 대상들과 올바른 관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되는 공동체교육을 실시하

4) 이하 인간과 지식에 대한 기독교적 논의에 대한 부분은 강영택(2009)의 논문 ‘학교공동체에 대한 기독교적 모형 연구’를 참조하고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음.

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학교의 공동체교육은 학교 자체가 학생 개인의 개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성원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중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육이다.

지식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 기독교교육학자들은 지식이 인격적, 공동체적, 참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박상진, 2004; 한철희, 2004; Palmer, 1993). 지식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식이 인식주체의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주체와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물을 인식할 때 인식주체의 개인적 열정, 가치, 호기심, 신념 등이 지식 습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식이 공동체적이라는 말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인식주체의 주관에 의한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행위라는 의미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존하게 된다. 나아가 실재란 개별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적 관계망 가운데 존재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실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의 공동체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인식주체가 인식대상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 대상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은 참여적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의 참여적 성격은 대상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말씀은 지식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 관습적 앎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호 4:6)라고 말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역시 인격적이지도, 참여적이지도 않은 지식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요 8:1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앎(knowing)은 존재(being)와 유리될 수 없다.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우리의 존재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상과 같이 지식의 인격적, 공동체적, 참여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독려하는 탐구식 수업이나 협력 학습이 주된 교수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수방법의 사용은 지식을 탐구하는 교실이 탐구주제, 학생, 교사 사이에 유기적 관계성이 형성되는 공동체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식의 참여적 성격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실천에 까지 나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팔머(1993)가 말한 대로 교육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에서의 통전성과 환대의 영성교육을 생각하거나 교육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지식관을 고려할 때 공동체교육은 기독교학교교육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학교에서 공동체교육이란 공동체성이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되는 동시에 공동체성이 교육의 방법이 되는 것을 일컫는다. 즉, 기독교학교의 공동체교육은 학생들이 이웃이나 자연을 비롯한 타자와 화목한 관계를 갖는 공동체 형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지식의 탐구과정에서도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 등 공동체적 성격을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삼는 교육이다.

그런데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교육이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공동체에 대한 오해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팔머(2008)는 공동체를 진정한 공동체와 거짓 공동체로 구분하였다. 공동체교육은 단순히 공동체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진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거짓 공동체는 집단이 개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정한 공동체에서는 집단이 개인을 살피고 개인은 집단을 살피 서로가 균형을 잡도록 해준다. 거짓 공동체는 이데올로기의 추상적인 개념이 개인을 삼켜버리는 반면 진정한 공동체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들이 존중된다. 진정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자기비판적 공동체이다(Palmer, 2008: 145-147). 그러한 공동체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유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세상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려는 우리의 욕구를 없애기에 충분한 다양성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다(Palmer, 2008: 151).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힘듦과 실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모든 관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버(M. Buber)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는 하나님의 현현을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독교학교의 공동체교육은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중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교

육은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영성을 기르게 하며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힘듦을 넘어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이러한 공동체교육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타자와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 소외감, 허무감 등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화해로운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학교에서 공동체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왔다. 기독교학교인 풀무학교는 공동체교육을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는 평민’이라는 풀무학교의 모토는 학교의 공동체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 100명 이하의 학생 수를 갖는 작은 학교규모는 풀무학교가 추구하는 공동체교육의 중요한 환경이 된다. 다양한 동아리활동, 소수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한 수업,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 등은 학생들 상호 간, 학생과 교사 간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교육방식들이다. 공동체를 교육의 목표로 삼을 뿐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을 교육방법으로 삼는 풀무학교 전공부의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공동체적 경험을 꼽기도 했다. 그들은 관념 속에 있던 공동체가 학교생활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되었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힘들었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김정숙·강영택, 2012).

3. 정의와 평화교육

성경적 의미에서의 정의와 평화는 기독교학교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교육목표이자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이다. 정의와 평화를 기독교학교의 교육목표로 삼는 이유는 정의와 평화가 기독교학교의 토대가 되는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궁극적 비전은 샬롬이다(Wolterstorff, 2004; 양금희, 2007). 구약에서 샬롬의 의미는 전쟁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동체,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로 인한 평안과 안녕의 상태를 지칭하고, 이를 넘어 현재를 포함하여 종말론적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궁극적 구원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다(양금희, 2007). 신약성경 역시 샬롬(shalom)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평화(eirene)’란 단어를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엡 2:14-17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깨어진 두 가지 관계 즉, 인간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말하고 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삶은 평화를 만드는 삶 그 자체임을 신약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신약성경의 핵심적 개념어인 ‘하나님 나라’ 역시 구약에서의 샬롬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Plantinga, 2002). 샬롬은 평화로 번역되지만 단순히 인간 내면의 평온한 상태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정의로운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즉,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각자의 권리를 향유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정의가 샬롬의 필수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샬롬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정의를 품은 평화’ 혹은 ‘정의와 평화’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샬롬의 교육을 정의교육과 평화교육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정의는 오늘날 주로 통용되는 ‘보응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보다는 ‘기초적 정의(primary justice)’ 혹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가깝다(Wolterstorff, 2004).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경은 특히 권리가 박탈당하기 쉬운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주변인들의 정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인간이 갖는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계유지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가난의 문제는 권리 혹은 정의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한 사람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책무성/의무를 지게 된다. 즉,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아서 안 되고, 그들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빼앗겼을 경우 그들을 도울 의무를 진다(Wolterstorff, 200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을 금할 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생계수단이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보다 공평한 사회제도를 만드는 일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의는 샬롬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샬롬의 중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 자연, 이웃, 자신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평화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네 가지 관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인격적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경작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과의 관계,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 언제나 수용하고 긍정하는 가운데 성장에 힘써야 하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목함을 이룰 때 인간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화목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임을 창세기 1,2장은 보여준다. 기쁨의 동산이라

는 뜻을 지닌 에덴동산에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동산의 자연을 경작하며 서로간의 사랑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 평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인간은 여러 관계들이 깨어져 나타나는 현상인 ‘소외’를 맞이하게 되었다. 틸리히(Tillich)는 이런 소외현상을 1)존재간의 불화 혹은 이간 상태, 2)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는 교만, 3)무한한 탐욕 등으로 설명하면서 평화의 대립개념으로 보았다(고용수, 2007: 75). 성경은 평화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을 비롯한 인간의 사회·문화적 노력은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추구이다. 기독교학교에서 정의교육이란 정의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동시에 교육방법의 핵심 지표로 삼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는 정의를 위해 정의롭게 교육하는 공간이어야 한다(Wolterstorff, 2004).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교실과 학교가 정의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부합하는 존엄성을 표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학업활동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교육의 예가 된다. 학교가 학생을 선발 할 때 학생의 외적 조건들 즉, 인종, 문화, 집안 배경 등을 고려하여 뽑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학교와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학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한 교육을 받는 학습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정의를 교육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며 정의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실천성을 계발시키는 것이다.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경향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정의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인지적 사고틀을 갖고 윤리적 인격의 형성을 위해 돕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인지적 사고틀의 형성은 성경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적 사회윤리와 사회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종합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윤리적 인격 형성을 위한 좋은 방안은 모델링(modeling)과 공감(empathy)의 형성이다(Wolterstorff, 2002). 학생들은 주위의 사람들, 특히 그들이 애정 혹은 존경을 갖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관찰한 후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교사의 모델링은 학생들의 윤리적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불의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불의로 인한 회

생자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특히 소설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다. 좋은 리얼리즘 소설은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을 알게 하고 특히 소외받는 자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정의를 위한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Nussbaum, 1995). 월터스토프(2004: 36)는 “정의를 위한 열정은 공감의 산물이다”라고 했다.

기독교학교에서 평화교육이란 평화가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교육의 내용이 되는 교육이다. 평화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먼저 네 가지 관계 즉,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사회, 자연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함으로 그것으로부터 연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교육이다. 나아가 학생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 안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천 함으로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교육이다(양금희, 2007).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화교육은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교육이다. 죄, 회개, 용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 등의 주제를 이해하고 묵상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초대하는 교육이다. 학생이 자신의 내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약점과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공동체적 영역에서 화해와 치유를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쟁과 지배 대신 협력적 삶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고 구조화된 폭력과 불의에 대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넷째, 자연과의 관계에서 상생하는 생태적 삶의 태도를 배우는 교육이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이 피조세계의 일부로서 충실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질 것을 배워야 한다.

기독교학교에서 평화교육은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평화실천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바트케(Battke)의 평화학습모델은 정의교육과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양금희, 2007). 바트케의 평화학습모델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평화문제와 만나고 그것을 개인적이고 실존적 차원으로 내면화하고 공감하도록 인도된다. 둘째 단계에서는 평화문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분석적 이해로 초대된다. 셋째 단계에서는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실천 전략과 계획을 숙고한다. 넷째 단계

에서는 전략과 계획을 실험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걷게 한다. 다섯째 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양금희, 2007: 147-148). 바트케의 평화학습모델에 기독교적 평화개념에 대한 숙고를 첨가하면 이 모델은 기독교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기독교학교의 정의와 평화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학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와 평화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공적가치이지만 오늘날 학교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교육목표이기도 하다. 정의와 평화교육을 통해 기독교학교는 불의와 단절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IV.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기여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교육목표가 개인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필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할 때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교교육에는 분명히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차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시장화와 오랜 우리나라 학교문화인 입시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의 시장화에서는 학생이 교육 받는 것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민적 책무성이라는 공공성이 개입될 여지가 줄어든다. 그리고 입시교육 하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모두 상급학교 진학 특히, 대학 입시를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공적가치들은 명분으로만 존재할 뿐 교육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교육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공공성이 취약한 교육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사회는 개인적 욕망의 각축장이 되어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사회의 혜택을 독점하는 불의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이런 징조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나타나

고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교육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학교라고 해서 교육의 시장화와 입시교육이라는 영향권으로부터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 학교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더불어 중립학교들이 주장하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로 인해 교육공공성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세 가지 교육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기독교학교는 우리 사회의 위기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학교에서의 영성교육, 공동체교육, 정의 및 평화교육이 우리사회의 공공성 확립에 공헌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학교의 영성교육은 과도한 물질주의와 현세주의로 인해 소외와 허무 속에 갇혀있는 우리 학교와 사회를 인간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자에 대한 넓은 이해로 가득한 학교와 사회로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경제성장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경제 발전은 우리사회의 목표이자 학교의 목표가 되었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과 자기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절대적인 과업이 된 현실에서 학교교육은 심미적, 영적, 초월적 가치를 간과할 수밖에 없다. 심미적, 영적, 초월적 가치가 배제되고 물질주의, 경제주의, 실증주의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인간은 영성과 감성이 결여된 메마른 존재로서 소외감과 허무감을 갖기 쉽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기독교학교의 영성교육은 인간이 지·정·의로 구성된 총체적인 인격체이며 현세적 가치 뿐 아니라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통전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성교육을 통한 내적 정체감과 외적 관계가 건강한 개인들의 양성은 서로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심미적, 영적으로 풍요로운 공적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기독교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성교육은 학생들을 종교적 세계로 인도해 들이고 그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데 그런 영적 경험은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 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송순재, 2006). 그래서 영성교육은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생명적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경쟁과 지배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더불어 사는 가치가 생동하는 생태적이며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영성교육/신앙교육은 한말 기독교

교인 민족지도자들이 세운 기독교학교에서도 유사하게 실시되었다.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나 도산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에서 이승훈, 유영모, 조만식, 안창호 등과 같은 신실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에 의한 신앙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신앙적 경험이 자신을 넘어 이웃과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강영택, 2012a). 즉 진정한 영성교육/신앙교육이란 개인의 내면의 문제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언제나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해 감으로 사회의 공공성 확립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독교학교의 공동체교육은 개인주의와 경쟁 지상주의에 포획되어 각박해진 우리 학교와 사회를 따뜻하고 화목한 관계가 살아있는 학교와 사회로 거듭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공동체교육을 통해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가르치고 타자를 경쟁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배려의 관계 속에 있는 나와 다른 인격적 주체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부버의 표현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나(I)와 그것(It)’의 관계가 아닌 ‘나(I)와 너(You)’의 관계를 경험해야 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나와 너의 진실한 만남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Buber, 1958). 또한 기독교학교의 공동체교육은 공공성의 핵심내용이 되는 교육평등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지역의 학교와 부유한 지역의 학교 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차이가 심한 편이다. 교육적 자원이 부족한 가난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학업교육의 측면에서 자원의 부족을 보완해주는 요소가 학교에서의 공동체적 경험이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들과 어른들의 빈번한 만남을 기획하는 공동체교육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공급하는 효과를 주어 학교중퇴율을 줄이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Bryk, et. al., 1993).

기독교학교인 풀무학교에서 실시한 공동체교육은 학생들에게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공동체적 경험을 하게할 뿐 아니라 나아가 졸업 후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게 했다. 풀무학교가 위치한 홍성군 홍동마을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기농 산지이면서 협동조합이 발달한 곳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풀무학교의 영향이 컸다(강영택·김정숙, 2012). 풀무학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학교의 졸업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남아 자립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의 홍동마을이 생겨날 수 있었다. 풀무학교의 공동체교육은 기독교학교의 공동체교육이 교

육공공성 확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기독교학교의 정의와 평화교육은 우리사회의 시장만능주의와 권력지상주의로 인한 패배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외면당하는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의를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라 할 때, 오늘날 학교교육은 정의를 촉진하는 교육이라 말하기 어렵다. 학교교육에서 학업의 신장을 위해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고 제도화되어 있고, 경쟁에서 이긴 소수의 승자에게만 모든 사회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교육에서의 경쟁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를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가 학생의 가정배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고, 대학간의 서열이 졸업생들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현실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쟁에서 일차로 실패한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의로운 교육일 것이다. 나아가 정의와 평화교육은 우리사회와 학교에서의 경쟁이 차별적 보상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폭넓게 채용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적인 경쟁이 되도록 사회체제를 재편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정의와 평화교육을 학교교육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가톨릭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을 내면화시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교육하고 있다(Bryk, et. al., 1993). 또한 가톨릭학교들 중 일부는 가난한 소수인종들이 사는 미국의 도심지에 위치하여 그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공립 학교보다 높은 교육적 성과를 성취함으로써 교육적 평등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Bryk, et. al., 1993). 이처럼 정의와 평화교육은 교육의 목표나 내용과 관계할 뿐 아니라 교육의 대상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정의와 평화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그들을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같은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교육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⁵⁾

V. 결론

공교육제도의 발달과정에서 공교육의 학교들은 교육공공성의 추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학교를 돌아볼 때 학교교육의 현실이 공공성의 추구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는 경제와 물질 만능주의의 범람 속에서 개인의 이익과 영달 추구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을 통해 인간의 삶과 유리된 단편적인 지식을 학생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진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처한 가정형편에 따라 일부의 학생들은 보다 효과적인 수업의 기회를 갖는 등 차별이 심심찮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 하에서 공적으로 사유하고 말하고 행위하며 타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형성될 리 없다.

기독교학교 역시 공공성을 상실해가는 오늘날 학교교육의 세대 속에서 이러한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학교의 토대가 되는 성경적 가르침과 일부 선구적인 기독교학교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학교교육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 기독교학교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잃어가는 핵심적인 공적가치들인 생명존중, 공동체성, 정의, 평화 등은 전통적으로 성경과 기독교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들을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속에 내면화시킨 영성교육, 공동체교육, 정의와 평화교육은 기독교학교가 우리사회의 공공성 확립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점차 심해지는 교육의 사사화와 경쟁적 입시교육을 극복하고 기독교학교가 학교의 원래적 사명에 충실할 때 기독교학교가 지속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에 기여하게 된다. 기독교학교에서 하는 영성교육, 공동체교육, 정의와 평화교육은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풍요롭고 깊이 있는, 평화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가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학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5)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새날학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여명학교, 몽골 이주노동자자녀를 위한 재한몽골학교 등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다수의 학교들이 기독교인 혹은 교회에 의해 운영되는 기독교학교들이다.

참고문헌

- 강경근 (2006).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개정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강영택 (2009). “학교공동체에 대한 기독교적 모형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24집. 37-67.
- _____ (2012a). “초기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비교고찰.” 『신앙과 학문』. 17(2). 7-37.
- _____ (2012b).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한 시도.” 『기독교교육정보』. 34집. 145-180.
- _____ · 김정숙(2012).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연구: 홍성군 흥동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3집. 27-49.
- 고용수 (2007). “평화의 비전과 그리스도인의 삶.” 고용수 외 편. 『평화와 기독교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김신일 (2006).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한국교육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재웅 (2006).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한국에서의 종교교육 자유의 현실과 과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 김재춘 (2006).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무엇을 위한 자율성과 공공성인가?” 한국교육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정숙 · 강영택 (2012). “농촌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체형성 과정.” 『한국교육학연구』. 18(2) 51-82.
- 박상진 (2004).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 박종보 (2007).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법학논총』. 24(3). 49-65.
- 서덕희 (2001). “또 다시 묻는 질문, 교육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중등우리교육』. 10월호. 118-125.
- 성병창 (2007). “교육 공공성의 개념체계와 정립 원리.” 『초등교육연구』. 20(3). 229-249
- 손원영 (2007).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이 진단과 평가. 그리고 새 방향.” 『기독교학교교육』. 6집. 48-74.
- 송순재 (2006). “자유종교교육 모형 탐색: 기독교 종립대한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3. 49-76.
- 양금희 (2007). “통전적 평화를 지향하는 기독교 평화교육 연구.” 고용수 외 편. 『평화와 기독교 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엄기호 (2001). “국가와 시장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우리교육』. 141-148.
- 이윤미 (2001). “공교육의 역사성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교육비평』. 6호. 12-31.
- 이종태 (2006).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 『한국교육』. 33(3) 3-29.
- 전재중 (2006).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해석.” ‘한국에서의 종교교육 자유

- 의 현실과 과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 한명희 외 (2010).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 한철희 (2004). “신앙교육을 위한 지식의 암묵적 내주성 고찰: 마이클 폴라니의 인식론과 파커팔머의 영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집. 399-428.
- 홍순명 (1998).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 이야기』.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Bryk, A., Lee, V., & Holland, P. (1993). *Catholic Schools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Buber M. (1958). *I and Thou*. New York: Scribner's.
- Mouw, R. (2004). *Calvinism in the Las Vegas airport: Making connections in today's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 Migliore, D. (1991).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rand Rapids, MI: Eerdmans.
- Nussbaum, M. (1995). *Poetic Justice*. 박용준 역. (2013) 『시적 정의』. 서울: 궁리
- Furman, G. (2002). Introduction, Furman (ed.) *School as Community*. Albany, New York: SUNY Press.
- Palmer, P.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 (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Palmer, P. (2008). *The Promise of Paradox*. 김명희 역 (2012). 『가르침』. 서울: 아바서원
- Palmer, P. (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김찬호 역 (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서울: 글항아리
- Plantinga, C. (2002). *Engaging God's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 Sergiovanni, T. (1996).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 Wolterstorff, N. (2002).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MI: Baker.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ABSTRACT

The Mission and Publicity of Christian Schools

Young-Taek Kang (Woos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what is the content of publicity that Christian schools pursue and what is the contribution of the Christian schools to our society. This paper, for this purpose, has reviewed the discussions of educational publicity so far, and suggested three kinds of education that Christian schools need to practice in order to secure public good. Today, our society is going to lose public core values such as respect for life, a sense of community, justice, and peace. Spiritual education, community education, justice and peace education, in which these core values are internalized,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ity in our society. Spiritual education of a Christian school will change our schools and society which are struggling with alienation and emptiness resulted from materialism and secularism into the schools and society full of deep reflection on human beings and wide understanding of others. Community education of a Christian school will recover our schools and society which are harsh in the supremacy of individualism and competition to the schools and society full of warm and harmonious relationships. Christian school education for justice and peace will contribute to build a just society which comforts losers and provides them with an opportunity to recover.

Key Words: Christian schools, educational publicity, spiritual education, community education, education for justice and peace

